

전남, 도시에서 농촌까지 고층 아파트 난립

용도용적제 일률 적용 ... 중소도시에서 용적률 1000% 넘는 사례까지
개발 허가제·이익일부환수 명문화 등 도입 전면일률 경관 억제해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인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면서 전면일률적인 고층 아파트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의 중소도시에서 용적률(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1000%가 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아무런 제어 없이 개발밀도만 높아지고 있다. 중소도시나 농촌의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발밀도를 법적으로 미리 정해둔 용도용적제

의 폐지, 사업대상지 개발허가제 도입 검토, 경관심의 강화,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 환수 명문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가지마다 똑같은 형태의 고층 아파트 경관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3일 광주일보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용적률 400% 이상을 행진 사업 대상지가 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00% 이상인 경우가 7건이었다. 무려 1000% 이상도 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

건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건축위원회에서 지역 여건, 경관,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최대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해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 같은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남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15일 여수 돌산읍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과 용적률을 각각 69.47%, 1034.81%로 지하 6층 지상 36층을 조건부로 가결해줬다. 2020년 12월 7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는 여수 학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폐율 68.92%, 용적률 1151.85%를 적용해 지하 4층 지상 36층으로 건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 결

정을 내렸다.

과도한 용적률을 허가해주면서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등 중소도시만이 아니라 화순, 구례, 완도 등 군지역에서도 30층 이상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2019년 11월 20일 건축위원회가 용적률 441.74%로 지하 3층 지상 36~38층을 짓겠다는 화순 주상복합 아파트 계획, 2018년 12월 19일에는 용적률 832.59%로 지하 3층 지상 37층을 건축하겠다는 완도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각각 조건부로 각각 승인했다. 용적률 853.61%로 지하 2층 지상 32~37층의 완도 가용리 주상복합 아파트는 2020년 4월 6일 서면 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용적률 541.26%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9층의

구례읍 봉동리 공동주택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중소도시와 농촌 시가지에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설정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남 시·군의 쇠락한 상업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연이어 짓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시·군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전남도에서도 시·군에서 올린 사안이라며 검토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대도시에서 이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군에서도 이유 없이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

6월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날로,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전 9시 종로구 보건소에 도착해 체온 측정과 신분 확인, 예진을 마친 뒤

백신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간호사의 요청에 반팔 셔츠의 소매를 걷은 뒤 "주사를 잘 놓으신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접종을 마쳤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공무 출장 등 필수목적 출국 시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엔 종로구 보건소를 G7 정상회의 출국 대표단 예방접종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원래 대통령의 건강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서울지부병원이지만, 다른 대표단 구성원과 함께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종로구 보건소에서 접종이 이뤄졌다.

서훈 국가안전보장장과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제1부속실 행정관 및 경호처 직원 등 G7 정상회의에 함께하는 필수 수행원 9명도 이날 함께 접종했다. 문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총 11명이 접종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 바이알(병)당 11도즈(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종사자

광주·전남 3만9천명 AZ백신 접종 시작

광주와 전남 등 전국에서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방역당국은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긴장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며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접종에 들어갔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게 되며 광주지역 접종대상은 1만5008명, 전남은 2만4000여명이다.

당초 65세 이상 고령자는 AZ 백신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임상자료 등이 부족해 1분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상 없다'는 방역 당국 판단에 따라 접종이 개시됐다. 요양병원은 이날부터 시작해 2주간, 요양시설은 오는 30일부터 시작해 6주간 적절한 간격을 두고 분산 접종할 계획이다. 1차 접종 후 10주 뒤 2차 접종하는 일정이다. 요양병원은 상근 의사가 예진한 후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보건소 방문팀이 방문 접종하거나 여건에 따라 시·군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고령임을 고려해 접종과정 중 예진을 강화하고, 접종 7일 후까지 매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해 조기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선 차례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2일 기준 광주시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률은 90.3%로 2만7122명이 1차 접종을 했으며, 전남도는 88.1%(3만3444명)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급물살 탈 듯 ▶2면

KIA, NC에 11-1 대승. 포수 이정훈 3점포 ▶18면



살고싶은 집 - 광주 일곡동 버드하우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도시가스 냉방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하세요!"

가스냉방으로 에너지 30% 다이어트

응자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한국에너지공단)

투자비 지원
가스냉방설비설치장려금
(한국가스공사)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GHP보급 대수(실외기)

년도	대수
2015년	26
2016년	60
2017년	94
2018년	6
2019년	21
2020년	56
누적	263

사용은 전기 시스템 에어컨과 동일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가동)

**에너지요금 절감(30%~α)
수전용량 축소(전기제품의 1/10)**

250㎡(80평)이상: 종교시설, 산업체, 의료시설 등

광산구 ㅇㅇ기업 동구 ㅇㅇ병원 광산구 근린생활시설

주)설치 대상, 용량 및 운전패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1544-1115 / www.hyenergy.co.kr "해양에너지 SNS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f YouTube Instagram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